

보편성에 따른 한국어와 태국어의 음운대조

김선정* · 꺾나파 분마릿**
(계명대학교)

1. 머리말

한국어와 태국어는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며 언어학적인 특징도 매우 다르다.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고 교착어인 반면에, 태국어는 중국-티벳어족에 속하고 고립어이며 다섯 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태국어를 전반적으로 대조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한국어와 태국어의 음운대조는 아직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태국어의 음운을 보편성의 관점에서 대조해보고자 한다.

언어에 관한 음성·음운의 구체적인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준 것은 Maddieson(1980, 1984)의 *UCLA Phonological Segment Inventory Database*(이하 *UPSID*)와 Haspelmath, Dryer, Gil & Comrie(2005)와 이후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이하 *WALS*)일 것이다. 이를 통해 언어의 자음과 모음 목록의 크기를 비롯하여 음성·음운에 관한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UPSID*와 *WALS*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태국어의 음운을 대조하고자 한다.¹⁾ 다시 말해, 유형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자음과 모음, 나아가

* 제1저자, ** 제2저자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음절구조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연언어의 음소는 언어에 따라 수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UPSID*에 따르면 한 언어에는 최소 11개, 최대 141개의 음소가 있다. 한국어에는 31개의 음소가 있고, 태국어에는 30개가 있다. 그렇다면 두 언어에서 사용되는 자음의 수는 많은 것일까, 적은 것일까? 또한 한국어의 장애음에는 평음, 경음, 격음 등 세 가지가 있는데, 태국어에는 유성음과 무성 유기음, 무성 무기음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영어나 일본어와 같이 무성 평음과 유성 평음으로만 양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한국어와 태국어 중 어느 언어가 더 보편적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UPSID*와 *WALS*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태국어의 음운을 대조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어와 태국어의 자음 대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언어의 음소 수에는 언어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분석 대상 언어 중 65%는 음소의 수가 20개에서 35개 사이고, 평균 음소의 수는 31개를 조금 넘는다.

*UPSID*에 의하면, 자연언어의 모음 대 자음의 비율은 1:1.76~16에 이르는 데 약 50%의 언어가 1:3~5에 분포되어 있다. 한국어와 태국어의 모음 대 자음의 비율을 보면, 한국어는 10:21이고, 태국어는 9:21로 비슷하다. 따라서 두 언어 모두 자음보다는 모음이 다소 많은 언어라고 하겠다. 그러면 한국어와 태국어의 자음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자.

-
- 1) 태국어의 음운체계에 관하여는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의 online (<http://wals.info>) 자료와 *UCLA Phonological Segment Inventory Database (UPSID)*, Wikipedia, 권나파(2012)를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 2) 자음과 모음 목록의 크기나 내용 등을 유형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허용(2004, 2008, 2011)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음운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허용·김선정(2005)을 참고하여 기술하고, 대조언어학적 접근은 허용·김선정(2013)을 따라 분석한다.

1. 한국어와 태국어의 자음 체계

한국어의 자음에는 21개가 존재한다.³⁾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등 다섯 가지로 나뉘고,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활음으로 나뉜다. 또한 기(aspiration)의 세기에 따라 평음, 경음, 격음으로 분류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한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방법 \ 조음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평음	ㅂ [p]	ㄷ [t]		ㄱ [k]	
	경음	ㅃ [p']	ㄸ [t']		ㄲ [k']	
	격음	ㅍ [ph]	ㅌ [th]		ㅋ [kh]	
마찰음	평음		ㅅ [s]			ㅎ [h]
	격음		ㅆ [s']			
파찰음	평음			ㅈ [tʃ]		
	경음			ㅉ [tʃ']		
	격음			ㅊ [tʃh]		
비음		ㅁ [m]	ㄴ [n]		ㅇ [ŋ]	
유음			ㄹ [l, r]			
활음		[w]		[y]		

태국어에도 21개의 자음이 존재한다.⁴⁾ 따라서 한국어와 태국어의 자음은 수적인 면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태국어의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성대진동의 유무에 따라 나뉜다. 그러나 무성음의 경우 기의 유무에 따라 무

- 3) 한국어의 자음에는 19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글에서는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유형적 보편성을 파악하고, 태국어와의 대조를 위해 *UPSID*와 *WALS*의 제시 방식을 따라 활음인 양순음 /w/와 경구개음 /y/를 자음에 포함시켜 21개로 간주한다.
- 4) 그러나 태국어의 자음을 표시하는 글자에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kh] ฤ, ฤ를 포함하여 42개가 있다. 이는 하나의 소리에 여러 개의 글자가 대응되기 때문이다. 즉, 글자 ‘ฤ, ฤ, ฤ, ฤ’은 소리상 모두 자음 [s]이고, ‘ฤ, ฤ, ฤ, ฤ, ฤ, ฤ’는 소리상 모두 자음 [th]이다.

기음(평음)과 유기음(격음)으로 나뉜다. 태국어의 자음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태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양순음	순치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무기	무성						
파열음	무기	무성	[p]	[ph]	[t]	[c]	[k]	[ʔ] ⁵⁾	
	유기		[t]						[ch]
	유성	[b]	[d]						
마찰음	무성		[f]	[s]				[h]	
비음			[m]		[n]		[ŋ]		
유음					[r]				
					[l]				
활음			[w]			[y]			

한국어와 태국어의 자음을 조음 위치 면에서 대조해 보면 한국어는 양순, 치조, 경구개, 연구개, 후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반면에, 태국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순치음이 있다. 조음 방법 면에서는 한국어의 파열음은 평음, 경음, 격음

5) 이철재(2007)에 따르면 한국어의 ‘ㅇ’과 태국어의 ‘ʔ’은 모두 초성 자리에 쓰여 자음 자리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한국어와 태국어는 모두 표기상 모음을 바로 초성 혹은 어두에 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어 ‘apple’을 한국어로 표기하면 ‘애플’로 모음 ‘ㅏ’ 앞에 ‘ㅇ’을 사용하여 자음 자리임을 가리킨다. 이를 태국어로 표기하면 แอปเปิ้ล이고 [ʔɛp-pɯn]으로 발음한다. 이 때 한국어의 ‘애’의 ‘ㅇ’과 같은 것이 ‘ʔ’이다. ‘양’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어두의 ‘ㅇ’은 자음 자리를 가리키는 기호인 반면, 어말의 ‘ㅇ’은 [ŋ]으로 발음된다. 태국어에서는 어두의 ‘ㅇ’에 해당하는 음소가 [ʔ]이다.

으로 나뉘는 반면에 태국어의 파열음은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나뉘고, 무성음은 다시 유기음과 무기음으로 나뉜다. 한국어의 평음은 태국어의 무성 유기음보다 공기의 세기가 조금 약하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의 격음은 태국어의 무성 유기음보다 공기의 세기가 더 강하고, 한국어의 경음은 태국어의 무성 무기음보다 더 긴장성이 높다(분마룻, 2012).

태국어에는 파찰음이 없다. 하지만 태국어의 ‘[c], [ch]’는 파열음에 가까운 소리이나 파찰음과도 유사하다. 한국어의 ‘ㄸ’는 태국어의 ‘[c]’와 비슷한 소리이며, 한국어의 ‘ㅈ’는 태국어의 ‘[ch]’와 비슷한 소리이다.

공명음의 경우 한국어와 태국어의 비음은 거의 동일하나(시무앙, 2005) 유음은 한국어와 태국어가 다르다. 태국어의 경우 영어와 같이 [l]과 [r]이 분명히 다른 자음으로 존재하지만 한국어에서는 [r]과 [l]이 변이음이다. 즉, 모음 사이의 /ㄹ/은 ‘다리, 노래’에서와 같이 [r]로 발음되고, 나머지 위치에서는 ‘달, 날개’에서와 같이 [l]로 발음된다.

2. 보편성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와 태국어의 자음 대조⁶⁾

1) 자연언어의 이상적인 자음 체계

Maddieson(1984)은 최빈치인 자음 수에 맞추어 자연언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21개의 자음을 추출하여 ‘유형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체계 (typologically most plausible structure)’를 제시하였다.⁷⁾ 이는 가상의 자음 체계로 어떤 언어도 21개의 자음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다. 이상적인 자음 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이 절에서 제시하는 한국어와 태국어의 자음 대조는 허용(2012)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7) Maddieson(1984)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21개의 자음 중 가장 빈도가 낮은 자음은 /z/인데, /ts/나 /x, v, dʒ/ 등의 마찰음 또는 파찰음들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3〉 유형적으로 이상적인 자음 체계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음/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장애음	파열음	p	b	t	d			k	g	ʔ
	파찰음					tʃ				
	마찰음	f		s	z	ʃ				h
공명음	비음		m		n		ɲ		ŋ	
	유음				l, r					
	활음		w				y(=j)			

5개의 조음 위치를 사용하며, 방법적으로 보면 크게는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나뉘고 파열음은 성문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쌍을 가진다. 또한 4개의 비음과 2개의 유음이 있다.

UPSID에 따르면 한 언어에는 8개에서 10개의 파열음(파찰음 포함)이 있다. 나머지 자음은 언어마다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찰음의 경우는 2개에서 4개가 가장 흔하고(48%), 비음의 경우도 마찰음과 마찬가지로 2개에서 4개의 분포를 보이는데 이에 해당하는 언어가 83%나 된다. 또한 한 언어에는 2개의 유음(41%)과 2개의 유성 활음(69%)이 있고, 약 61%의 언어가 자음 /h/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한국어와 태국어의 자음 체계 대조

한국어와 태국어의 자음 체계를 보편성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두 언어 모두 수적인 면에서는 보편성이 높다고 하겠다. 두 언어 모두 자연언어 자음의 최빈치와 동일한 수의 자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⁸⁾ 한국어를 살펴보면, 공명음의 경우에는 모두 <표 3>에 포함된다. 반면, 장애음의 경우에는 /p, t, k, tʃ, s, h/의 6개만이 같고, 나머지 장애음 9개는 <표 3>에 없는 자음들이다. 즉, 반에 가까운 자음들이 보편적인 자음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는 수적인 면에서는 자음이 자연언어의 평균에 가깝기 때문에 보편성이 높다

8) UPSID와 WALIS에 의하면 자연언어의 자음 목록의 평균값은 22.7~22.8개이고, 최빈치는 21~22개이다.

고 하겠으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보편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태국어를 살펴보면, 공명음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모두 <표 3>에 포함된다. 장애음의 경우에는 /p, b, t, d, ʃ(c), k, ʔ, f, s, h/ 등 10개가 같으며, 나머지 장애음 4개만이 <표 3>에 없다. 즉, 4개의 무성 유기음(ph, th, ch, kh)만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자음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태국어의 자음 체계는 수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모두 상당히 보편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두 언어에서 모두 마찰음보다는 파열음이 많다. 이는 두 언어의 파열음에서 하나의 조음 위치에 세 개의 자음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크게 공명음과 장애음으로 나누어 보편성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어와 태국어를 대조해 보기로 하자. 먼저 공명음을 대조해 보자. 앞 절의 <표 3>에 제시한 자음의 유형적인 이상 체계를 보면 전체 21개의 자음 중 공명음이 8개이다. 이는 전체 자음의 3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상 체계이며, 실제로 자연언어는 장애음 70%와 공명음 30%로 구성된다(Lindblom & Maddieson, 1988). 두 언어의 장애음 대 공명음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4> 자연언어의 장애음 대 공명음의 비율

	자음 수	장애음 수	공명음 수	장애음 : 공명음
한국어	21	15	6	71.4 : 28.6
태국어	21	14	7	66.7 : 33.3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와 태국어는 장애음 대 공명음의 비율이 자연언어의 보편적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UPSID와 WALS에 의하면 10개 정도의 언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에서 비음의 존재가 확인되는데 두 언어에도 비음이 있다. 두 언어에는 각각 3개의 비음이 있고, 이들의 조음 위치를 보면 공통적으로 양순음과 치조음, 연구개음이다. 따라서 두 언어 모두 가장 빈도가 높은 3개의 조음 위치에서 소리나는 비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음의 출현 위치를 고려해 볼 때 한국어의 경우 어두에서는 /n/과 /m/만 나타나며 /ŋ/은 나타나지 않지만, 태국어에서는 /ŋ/도 나타난다. /ŋ/을 갖는 234개의 언어 중 146개가 어두에도 나타나며 어두에 나타나지 못하는 언어는 88개뿐이다(WALS, 9).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어는 보편성에서 멀고, 태국어는 상대적으로 보편성에서 가깝다고 하겠다.

유음은 대부분(95.9%)의 자연언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음으로 그 수가 ‘2개(41%) > 1개(23%) > 3개(14.5%)’의 순이다(Maddieson, 1984). 이 점에서 볼 때 2개의 유음을 가진 태국어는 한국어보다 보편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활음은 자연언어의 90% 이상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음이다(Maddieson, 1984). 경구개 접근음 /y/와 양순 접근음 /w/는 양 언어에 있는데 이 두 활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71.3%)이 자연언어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양 언어는 모두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양 언어의 장애음을 대조해 보기로 하자. 자연언어에 있어 공명음이 없는 언어는 있어도 장애음이 없는 언어는 없다. 그리고 장애음은 공명음보다 수에 있어서나 조음 방법 면에 있어서나 훨씬 다양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 언어의 자음 체계의 특성은 장애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에 제시된 파열음은 파찰음을 포함하여 8개이고, 21개의 자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dʒ/를 포함하면 9개가 평균값이다. 이를 비율로 따지면 약 40% 내외가 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어는 57%(12/21), 태국어는 52%(11/21)로 파열음의 수가 많은 편이다. 자연언어에서의 파열음의 조음 위치는 최대 6가지이다. 언어의 반 이상(53.9%)이 3개의 조음 위치를 갖는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어와 태국어는 자연언어의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파열음의 조음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자. 한국어와 태국어 모두 조음 방법의 수는 세 가지이다. 조음 방법의 수는 두 가지가 51.1%로 가장 보편적이고, 세 가지는 24%로 두 번째이다. 이로써 조음 방법의 수면에서 두 언어 모두 보편성이 다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음 방법을 가질 경우(15.8%)에는 98%에 해당하는 언어가 무성 평음이고, 2개의

경우에는 무성 평음과 유성 평음이고, 격음을 갖는 경우는 16%에 불과하다. 그러나 3개의 조음 방법을 갖는 경우에는 무성 평음과 유성 평음, 무성 격음(유기음)의 순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처럼 3개의 조음 방법이 무성 평음, 무성 격음, 무성 격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한국어와 태국어는 똑같이 3개의 조음 방법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다소 보편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으나 3개의 조음 방법을 갖는 언어 내에서는 태국어는 한국어와 비교할 때 보편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어에는 파찰음이 하나 있지만 태국어에는 없다. 한국어의 경우 파열음과 파찰음을 합친 조음 위치의 수는 4개로 *UPSID*의 기준에 따르면 보편적이다.⁹⁾

끝으로 마찰음에 관하여 살펴보면, 한국어와 태국어 모두 3개의 마찰음이 있어 수적인 면에서는 보편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마찰음의 구성 면에서 보면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s, f, h/를 가진 태국어와 /s, s', h/를 가진 한국어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어와 태국어의 모음을 대조해 보기로 하자.

III. 한국어와 태국어의 모음 대조

1. 한국어와 태국어의 모음 체계

한국어의 단모음은 지역과 연령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표준 한국어에는 21개의 모음이 있는데 10개는 단모음이고 11개는 이중모음이다.¹⁰⁾ 이를 혀의 높낮이와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9) 파열음과 파찰음을 합친 조음위치의 수는 4개가 43.8%로 가장 보편적이고, 그 다음이 5개(27.4%), 3개(19.6%), 2개(7.9%) 순이다.

10) 한국어 단모음의 수는 지역과 연령 등에 따라 7개, 8개, 10개로 차이가 나지만, 이 글에서는 표준 발음법을 따라 10개로 잡는다.

〈표 5〉 한국어의 단모음

앞뒤 위치 높낮이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i]	ㅟ [ü]	ㅡ [i]	ㅜ [u]
중모음	ㅔ [e]	ㅟ [ö]	ㅓ [ə]	ㅛ [o]
저모음	ㅐ [ɛ]		ㅏ [a]	

위에 제시된 10개의 모음 중 /ㅟ/와 /ㅟ/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한국어의 단모음을 10개로 본다면 5개의 전설모음과 5개의 후설모음이 있다. 또한 혀의 높낮이로 보면 4개의 고모음과 4개의 중모음, 2개의 저모음이 있다. 입술 모양에 따라 살펴보면 4개의 원순모음과 6개의 평순모음이 있다.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 ‘ㅣ (/y/또는 /j/)계’ 이중모음과 ‘ㅜ (/w/)계’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어에는 6개의 /y/계의 이중모음과 4개의 /w/계 이중모음, 그리고 [iy]가 있다. 또한 단모음과 반모음의 위치에 따라 상향이중모음과 하향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ㅣ’를 제외하고 모두 단모음이 뒤에 오는 상향이중모음이다.

〈표 6〉 한국어의 이중모음

이중모음의 종류	예
ㅣ (/y/)계 이중모음	ㅟ [ya], ㅟ [ə], ㅟ [yo], ㅟ [yu], ㅟ [ye], ㅟ [yɛ]
ㅜ (/w/)계 이중모음	ㅟ [wa], ㅟ [wə], ㅟ [wɛ], ㅟ [we]
기타	ㅣ [iy]

태국어의 모음은 총 32개로 단(單)모음이 18개, 이중모음이 9개, 특수 모음이 5개이다. 태국어의 단모음은 다음과 같이 길이에 따라 단(短)모음과 장(長)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¹¹⁾

11) 태국어의 경우 단모음과 장모음의 구별은 성조를 규정짓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수 모음은 다음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단모음과 종성 자음(coda)이 결합해서 이루어

〈표 7〉 태국어의 단모음

앞뒤 위치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높낮이	고모음	ᵃ[i]		ᵃ[i]		ᵃ[u]	
		ᵃ[i:]		ᵃ[i:]		ᵃ[u:]	
고	중모음	ᵇ-ᵇᵇ[e]		ᵇ-ᵇᵇ[ə]		ᵇ-ᵇᵇ[ɔ]	
		ᵇ[e:]		ᵇ-ᵇᵇ[ə:]		ᵇ[ɔ:]	
저		ᵇᵇ-ᵇᵇ[ɛ]				ᵇ-ᵇᵇ[ɔ]	
		ᵇᵇ[e:]				ᵇᵇ[ɔ:]	
저모음				ᵇᵇ[a]			
				ᵇᵇ[a:]			

태국어의 이중모음은 대부분 단모음과 장모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특성이 있다. 태국어에도 한국어의 이중모음과 유사한 /y/계와 /w/계의 이중모음이 존재한다. 그러나 태국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a/계 이중모음도 존재한다. 태국어의 이중모음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 태국어의 이중모음

이중모음의 종류	예
ɿ (/y/)계 이중모음	ᵇ-ᵇᵇᵇᵇ[iə], ᵇ-ᵇᵇᵇᵇ[iə:]
ɿ (/w/)계 이중모음	ᵇᵇᵇᵇ[uə], ᵇᵇᵇᵇ[uə:]
ɿ (/i/)계 이중모음	ᵇ-ᵇᵇᵇᵇ[iə], ᵇ-ᵇᵇᵇᵇ[iə:]
ɿ (/a/)계 이중모음	ᵇᵇ, ᵇᵇ[ai]
	ᵇ-ᵇᵇ[ao]

[y], [w] 뒤에 단모음이 오는 상향이중모음은 /y/계의 이중모음과 /w/계의

진 ‘ᵇᵇ[am] (ㅏ+ㅁ)’과 같은 모음이다. (예, ᵇᵇᵇᵇ[감], ᵇᵇᵇᵇ[람], ᵇᵇᵇᵇ[탐]) 둘째, 출현이 극히 제한적인 ‘ᵇᵇ, ᵇᵇ, ᵇᵇ, ᵇᵇ’ 모음이다. 이들은 자주 쓰이지 않는 모음으로 이들 모음이 들어간 단어를 암기하여 사용한다. 이 글에서는 태국어의 단모음을 한국어와 대조하여 모음의 수를 이야기할 때에는 특수 모음과 장(長)모음을 제외하고 단(短)모음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모음이 모두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y/계와 /w/계의 이중모음은 한국어의 상향이중모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한국어의 이중모음 ‘ㅟ’와 ‘ㅠ’는 반모음인 ‘ㅣ’와 ‘ㅜ’를 아주 짧게 발음하여 마치 하나의 모음을 발음하는 것처럼 발음한다. 이에 반해 태국어의 이중모음 ‘^{๓๕}เืย[iə]와 ^{๓๖}เือ[uə]’는 각각 ‘ㅣ ㅟ’와 ‘ㅜ ㅠ’와 같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합해진 것처럼 발음한다. 그러나 태국어에는 한국어와는 달리 ^{๓๗}เืย[짜이], ^{๓๘}เือ[바이], ^{๓๙}เือ[아이]와 ^{๔๐}เือ[까오], ^{๔๑}เือ[카오], ^{๔๒}เือ[라오] 등에서 발견되는 영어와 유사한 ^{๔๓}เือ[ai]와 ^{๔๔}เือ[ao]와 같은 하향이중모음이 있다. 이 점이 태국어의 이중모음을 한국어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2. 보편성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와 태국어의 모음 대조

한 언어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모음 수는 5개부터 7개이다. 이중에서도 5모음체계 언어가 가장 많다. UPSID에 제시된 모음 수의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Schwartz et al., 1997).

〈표 9〉 자연언어 모음 수의 빈도

모음 수	언어 수	모음 수	언어 수
3	19개(6.0%)	9	24개(7.6%)
4	25개(7.9%)	10	8개(2.5%)
5	109개(34.4%)	11	4개(1.3%)
6	60개(18.9%)	12	2개(0.6%)
7	44개(13.9%)	13 이상	3개(1.0%)
8	19개(6.0%)	합: 317개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모음이 10개인 한국어와 9개인 태국어는 모음의 수가 많은 편이다. 자연언어에서 가장 선호되는 모음은 a, i, u, e, o, ε, ɔ, i, ə, ü, ö의 11개이다. 이들은 대체로 a, i, u > e, o 또는 ε, ɔ > i, ə > ü, ö의 순으로 선호된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어와 태국어는 모음의 수적인 면에서는 꽤 많은 편이나 내용 면으로 보면 모든 모음이 가장 선호되는 모음에

포함이 되므로 보편성이 높다고 하겠다.

IV. 한국어와 태국어의 음절구조 대조

1. 한국어와 태국어의 음절구조

음절을 이루는 방식은 언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음절은 기본적으로 ‘초성-중성-종성’으로 이루어진다. 초성은 모음 앞에서 발음되는 자음이며, 중성은 모음이고, 종성은 모음 뒤에서 발음되는 자음이다. 일반적으로 초성과 종성은 없을 수 있으나 중성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한국어에서 가능한 음절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10〉 한국어의 음절구조

음절구조	초 성	중 성	종 성	예
모음(V)		ㅏ		아, 오, 우
자음 + 모음(CV)	ㄷ	ㅓ		도, 가, 소
모음 + 자음(VC)		ㅓ	ㄴ	은, 입, 울
자음 + 모음 + 자음(CVC)	ㅁ	ㅓ	ㄴ	물, 공, 달

한국어 음절구조의 특징과 음소배열제약(phonotactic constraints)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음절구조는 CVC인데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된다. 영어의 ‘cotton [kɑ:tn], button [bʌtn], kettle [kɛtl]’과 같은 단어의 마지막 비음이나 유음과 같은 성절자음(syllabic consonants)이 없다(김선정, 2011).

둘째, 초성에는 하나의 자음만이 올 수 있는데 [ŋ]에 해당하는 ‘ㅇ’과 ‘ㄱ’이 오지 못한다. 고유어의 경우에는 기저구조에서조차 초성 자음군이냐 ‘ㅇ’, ‘ㄱ’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래어의 경우 자음군이 초성에 오면 ‘print [프린트], cream [크림], trunk [트렁크]’에서와 같이 자음군 사이에 ‘으’ 모음을 추가하여 발음한다. ‘ㄱ’의 경우에는 한자어는 [ㄴ]으로 바뀌 발

음하고, 그 외에 서양에서 온 외래어는 그대로 [ㄷ]로 발음한다.

셋째, 종성에는 파열되지 않은 세 개의 장애음 ‘ㄱ, ㄴ, ㄷ’ 과 함께 ‘ㅁ, ㄴ, ㅇ, ㄹ’ 등 총 7개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종성에서 발음되지 못하는 자음이 올 경우 고유어의 경우에는 ‘읏[읏], 읏[읏], 꺫[꺫]’처럼 같은 위치에서 나는 대표음으로 바꾸어 발음한다. 그러나 외래어의 경우에는 자음을 우선하는 원칙(onset-dominant principle)으로 인해 ‘bus [버스], pipe [파이프], beach [비치]’ 등과 같이 모음을 추가하여 자음을 제 음가대로 발음한다.

넷째, 종성 역시 하나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종성의 경우 고유어에서 겹자음이 오면 ‘값 [갑], 닭 [닥]’에서와 같이 두 자음 중 하나만을 발음한다. 그러나 외래어의 경우에는 ‘pulp [펄프], tent [텐트], camp [캠프]’와 같이 첫 자음은 앞 음절의 종성에서 발음하고 뒤 자음은 뒤 음절의 초성에서 발음하여 두 자음을 모두 발음한다.

태국어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과 성조(tone)로 이루어져 있다.¹²⁾ 태국어에서 가능한 음절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11〉 태국어의 음절구조

음절구조	예
모음(V)	อา[a:], เอ[e:], โอ[o:]
자음 + 모음(CV)	มา[ma:], ลา[la:], กา[ka:]
모음 + 자음(VC)	าน[a:n], เอง[e:ŋ]
자음 + 모음 + 자음(CVC)	กิน[kin], เบน[ben]
자음 + 자음 + 모음 + 자음(CCVC)	ปลอง[ploŋ], กรม[kra:m]

12) 한 언어에서 가능한 음절의 수는 해당 언어의 음절구조 유형과 음소배열 제약, 초분절 음소 등과 관계가 깊다(Maddieson, 1980). 태국어에서 가능한 음절의 수는 23,638인데 반해 하와이어는 162, 로토캐스어(Rotokas)는 350, 베트남어는 14,430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어의 음절 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타 언어와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태국어의 음절이 타 언어에 비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 수 있다.

태국어 음절구조의 특징과 음소배열제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음절에는 반드시 모음이 필요하다. 한국어와 같이 성절자음이 없다.

둘째, 태국어의 모든 음절은 반드시 성조가 있어 한국어의 음절보다 상당히 복잡하다.¹³⁾

셋째, 초성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자음(C1C2VC)이 올 수 있다.¹⁴⁾ 이 때 C1과 C2 간에는 엄격한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은 다음과 같다.

〈표 12〉 태국어의 초성 자음군

어두 자음군	C1	C2	예
자음 + 자음(C1C2)	장애음	[r]	กรรม [kra:m], พร่าง [phra:ŋ]
		[l]	กลาก [kla:k], คลอง [khlɔ:ŋ]
		[w]	ควาน [kwa:n], กวาง [khwa:ŋ]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초성 자음군 중 첫 자음은 장애음이고 두 번째 자음은 공명도가 높은 유음과 활음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음의 앞뒤 위치를 바꾼 자음군은 없다는 것이다. 즉, ‘rk-, lk-, rp-, wk-’ 등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다.

넷째, 종성에 파열되지 않은 장애음 ‘p, t, k’와 함께 ‘m, n, ŋ, w, y’ 등 8개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 유음 ‘ㄹ’은 초성에서는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만, 종성에서는 [ㄴ]으로 발음된다(예, ตาล/tal/ → [tan], กาล/ka:l/ → [kan]). 또한 한국어와 달리 외래어에도 중화현상을 적용하여 ‘bus’나 ‘bonus’와 같은 단어를 각각 [but]과 [bonut]으로 발음한다. 또한 자음 /l/이 외래어의 종성에 오는 경우에도 ‘bill’을 [bin]으로, ‘ball’을 [bon]처럼 태국어의 발음규칙

13) 태국어에는 5개의 성조가 있는데, ปา[pa], ป่า[pà], ป๋า[pâ], ป๋า[pá], ป๋า[pǎ]와 같이 자음 위에 표시한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성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14) 태국어의 초성 자음군에는 순수 태국어에서 사용되는 11개(kw, kr, kl, k^hw, k^hr, k^hl, pr, pl, p^hr, p^hl, tr)와 외래어에서 사용되는 6개(thr, br, bl, fr, fl, dr)로 총 17개가 있다(Pankhuenkhat, 2011).

을 적용하여 발음한다.

다섯째, 종성 역시 하나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외래어에서 종성에 자음군이 오는 경우 ‘tent [ten], camp [cam]’에서와 같이 자음 하나를 탈락 시키고 발음한다.

이를 통해 음절구조의 제약이나 음소배열제약으로 인해 어떠한 음운이 특정 위치에 오지 못할 경우 한국어와 태국어의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는 고유어와 외래어에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 반면에 태국어에서는 고유어와 외래어에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이 같다.

2. 보편성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와 태국어의 음절구조 대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에 따라 음절구조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초성과 종성에 출현할 수 있는 자음의 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WALS*에 의하면,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음절구조의 유형은 단순형 (CV)과 중간형 (CCV, CVC), 복잡형이 있다.¹⁵⁾ 한국어는 초성과 종성에 하나의 자음만이 올 수 있으므로 CVC 즉, 중간형에 속하는 반면 초성에 자음군을 허용하고 종성 자음이 가능한 태국어는 CCVC, 즉 복잡형에 속한다. 이러한 점이 한국어와 태국어의 음절구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음절구조의 세 가지 유형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음체계의 크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 자음의 수가 적을수록 단순형 음절구조 유형이 많고, 많을수록 복잡형 음절구조 유형이 많다.

〈표 13〉 음절구조 유형에 따른 평균 자음 수(*WALS*, 12)

음절구조 유형	평균 자음 수
단순형 음절구조	19.1
중간형 음절구조	22
복잡형 음절구조	25.8

15) *WALS*에 의하면 단순형 유형에 속하는 언어는 요루바(Yoruba), 하와이어 등으로 12.5%만이 이에 속한다. 중간형 유형에 속하는 언어가 가장 많아 56.4%(274/486)가 이에 속한다. 복잡형 유형에 해당하는 언어는 31.1%(151/486)이다.

위를 기준으로 할 때 자음의 수가 21개인 한국어의 경우 중간형의 음절구조 유형에 속하므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수의 자음을 가지고 있는 태국어의 경우 복잡형의 음절구조 유형에 속한다는 점에서 다소 보편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어에는 연음현상(liaison)이 있어 종성이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형 태소와 결합되는 경우 재음절화(resyllabification)가 일어난다. 즉, (C)VC의 구조에 V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가 연결되는 경우 (C)V#CV가 되어 앞 음절의 종성 자음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는 단일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태국어에는 연음현상이 없어 음절 단위로 끊어 발음하기 때문에 재음절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종성 자음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태국인 학습자들은 ‘녹음’을 [노금]으로 발음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녹음]으로 발음하고, ‘밥이’를 [바비]로 발음하지 않고 [밥이]로 발음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보편성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태국어의 음운을 대조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음의 경우 수적인 면에서는 두 언어가 모두 최빈치인 21개의 자음을 보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보편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내용 면에서는 태국어의 보편성이 높다. 이는 파열음의 구성 면이나 마찰음의 구성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파열음의 경우 한국어와 태국어의 모두 세 가지 대립 자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공통적이거나 태국어에서 사용되는 파열음은 유성 평음과 무성 무기음(평음), 무성 유기음(격음)으로 보편성이 높은 반면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무성의 평음, 경음, 격음은 보편성이 낮다. 마찰음의 경우에도 태국어에서 사용되는 음은 모두 보편적인 데 반해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마찰음 /s, s', h/ 중 /s'/는 매우 특이한 자음이다.

모음의 경우에는 수적인 면으로는 두 언어가 각각 10개와 9개로 보편성이

떨어지지만 내용으로 보면 두 언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모음이 자연언어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음 목록에 속하므로 보편성이 높다고 하겠다.

음절구조의 경우 CVC의 한국어는 중간형 유형에 속하고, CCVC의 태국어는 복잡형 유형에 속한다. 종성에서는 자음 하나만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초성에서는 한국어에서는 자음 하나만 허용되는 반면 태국어에서는 두 개까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음의 수와 음절구조 유형을 관련지어 고려해 볼 때 21개의 자음을 가진 한국어는 중간형에 속하므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같은 수의 자음을 가진 태국어는 복잡형에 속하므로 보편성이 낮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국어와 태국어의 음운대조는 양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선정, 「한국어와 영어 대조 분석」, 『대조분석과 학습자 오류 분석』, 제7회 한국어교육 학술대회 논문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3-25, 2011.
- 견나파 분마룻,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중성 발음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철재, 『한국어와 태국어의 음운 현상 대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케와린 시무앙, 태국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허용, 「동남아시아 언어의 자음체계 대조 연구: 말레이어, 타이어, 버마어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63, 언어과학회, 343-368, 2012.
- 허용, 「중간언어 음운론을 위한 모음 연구」, 『이중언어학』 25, 이중언어학회, 309-330, 2004.
- 허용, 「중간언어 음운론을 위한 자음 연구」, 『한국어교육』 1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8, 2008.
- 허용, 「한국어 자음 체계의 유형적 보편성 연구」,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331-351, 2011.
- 허용 · 김선정, 『대조언어학』, 서울: 소통, 2013.
- 허용 · 김선정, 『음운론 이해』(원저: *Understanding Phonology*, Gussenhoven, C. & H. Jacobs(1998), Arnold Publishers), 서울: 동인, 2005.
- HASPELMATH, Martin, Matthew DRYER, David GIL & Bernard COMRIE,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LINDBLOM, Biorn & Ian MADDIESON “Phonetic Universals in Consonant Systems”, in Hyman, L. *Language, Speech, and Mind: Studies in Honour of Victoria A. Fromkin*, Routledge Kegan & Paul, 62-78, 1988.
- MADDIESON, Ian, “Phonological Generalizations from the UCLA Phonological Segment Inventory Database”, *UCLA Working Papers in Phonetics* 50, 57-68, 1980.
- MADDIESON, Ian, *Patterns of Soun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PANKHUENKAT, Ruengdet, *Thai Linguistics*, กรุงเทพฯ: โรงพิมพ์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ศิลปากรณราชวิทยาลัย, 1988.
- SCHWARTZ, Jean-Luc, Louis-Jean BOË, Nathalie VALLÉE & Christian ABRY,

312 비교문화연구 제35집 (2014. 6.)

“Major trends in vowel system inventories”, *Journal of Phonetics* 25,
233-253, 1997.

<Website>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http://wals.info/>

Wikipedia, <http://www.wikipedia.org/>

❖ ABSTRACT

Phonological Contrast between Korean and Thai in Terms of Language Universality

Kim, Seon-Jung

This paper aims to contrast phonology of Korean and Thai in terms of language universality. Considering consonants, both languages having 21 typologically most plausible consonants display high universality in the number of consonants. However, Thai shows higher universality in regards to their substance, i.e. it differs from Korean when it comes to the structure of plosives and fricatives. Both Korean and Thai show similarities regarding the plosives due to the fact that both languages possess three contrastive consonants. However, the Thai plosives consist of plain voiced, plain voiceless and aspirated voiceless sounds that have higher universality than the Korean plosives which are plain voiced, plain voiceless and aspirated voiceless.

In case of vowels, both Korean with its 10 vowels and Thai with its 9 vowels show lower universality when it comes to the total number of vowels. However, all of those vowels belong to the list of most plausible vowels which makes their universality higher in substance.

In respect of syllable structure, Korean with its CVC type shows a moderately complex structure while Thai with its CCVC type has a complex structure. The coda may consist of only one consonant in each language but onset is composed of one consonant in Korean, and two consonants in Thai.

The contrastive study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Thai in terms of phonology will help not only understand the two languages but als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increasing the efficac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ai learners of Korean whose number is rapidly increasing.

Key Words

한국어와 태국어, 음운 대조, 보편성, 자음과 모음, 음절구조

Korean and Thai, phonological contrasts, universality, consonants and vowels,
syllable structure

논문접수일: 2014. 05. 10

심사완료일: 2014. 06. 09

게재확정일: 2014. 06. 13